'저항·공감'… 시민참여 확대

5·18 29주년 행사위, 전국서 40여개 행사 진행

슬로건 '민중의 뜻대로! 다시 오월이다'

'5·18 민중항쟁 제 29주면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가 23일 옛 도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행사위는 다음달 4일부터 31일까지 광주·전남, 서울 등 전국에서 40여개의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위는 이날 '민중의 뜻대로! 다시 오월이다'를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 슬로건으로 확정하고, '저항'과 '공감'이라는 주제 아래 기념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행사위는 "29주년 기념 행사는 행사위 주도로 끝나는 기념행사가 아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대폭 늘렸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첫 행사는 다음달 4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어린이 학교'로 본격적인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16일에는 5·18 민주묘지에서 전교조 광주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학생 글쓰기·미술 한마당'이 펼쳐진다.

17일에는 29주기 전야제가 금남로에서 진행되며,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주먹밥을 나누었던 것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광주시민 주먹밥 나누기'행사도 준비됐다.

18일에는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시민광장(시민토론회)'와 5·18 희생 영령 추모제가 열린다.

또 16일과 17일 금남로에서는 전국노동자대회와 대학생 오월 한마당, 시도민한마당이 각각 열려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

17~27일엔 관공서와 학교 등을 상대로 조기 달기 및 리본 착용 운동을 전개하고 광주 시내를 운행하는 전 차량의 전조등켜기운동(17~18일)도 펼쳐진다.

이 밖에도 만장설치전(4~27일), 5·18 역사기행(9~24일), 판화체험전(13~18일), 전국휘호대회(23일) 등 문화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하지만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10개월 넘게 옛 도청 내에서 농성 중인 5·18 단체가 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지역 사회마저 갈등을 빚으면서 행사 차질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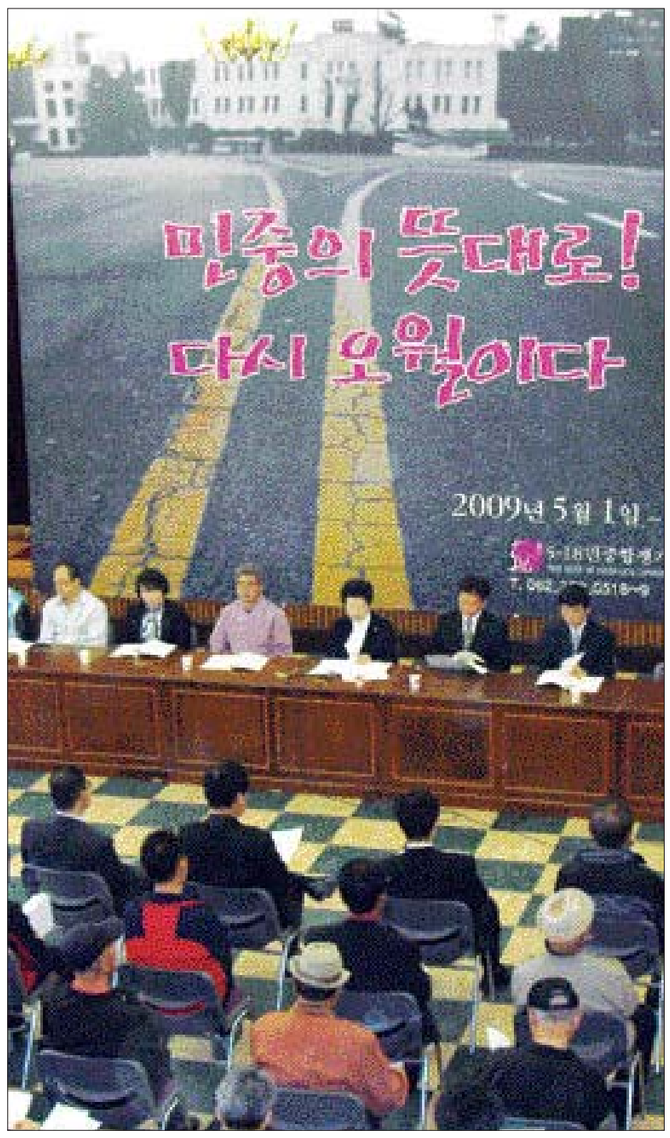
5·18 기념재단도 5·18 단체의 반발로 3개월 넘게 이사장 선출을 하지 못하면서 행사 준비에 차질을 빚어 5·18 행사의 주체인 5·18 단체가 빠진 채 '반쪽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18 행사위 관계자는 "행사위는 별관 보존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지역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현실 문제가 개입해 행사 자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 제 29주년 주요행사 일정표

일 시	장 소	행 사 명
5월 4~27일	망월묘역	만장설치전
9~24일	광주 일원	5·18 역사기행
13~18일	옛 도청	판화체험 '다시 드는 횃불'
16일	5·18 민주묘지 금남로 미정	전국학생 글쓰기 미술 한마당 5·18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한국 대학생 오월 한마당
17일	5·18 민주묘지 금남로	추모제(유족회 주관) 제9회 광주시민 주먹밥 나누기, 전야제
18일	5·18 민주묘지	5·18 시민광장(시민토론회) 추모제(원불교 광주·전남 교구 주관)



'민중의 뜻대로! 다시 오월이다'를 슬로건으로 확정한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23일 광주시 동구 옛 도청 민원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념행사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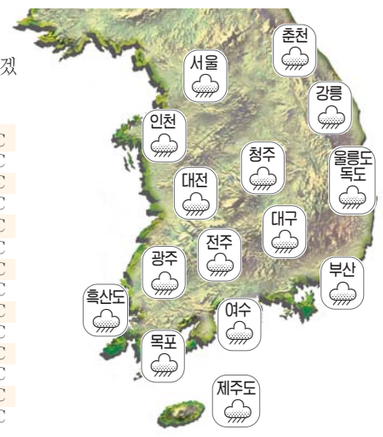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0분 해짐 19시 12분 / 달뜸 04시 48분 달짐 18시 26분

퇴근길 우산준비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광 주	흐리고 비	11/19℃
목 포	흐리고 비	12/17℃
여 수	흐리고 비	12/17℃
완 도	흐리고 비	12/19℃
구 례	흐리고 비	8/19℃
해 남	흐리고 비	10/19℃
장 흥	흐리고 비	10/19℃
고 흥	흐리고 비	11/17℃
순 천	흐리고 비	11/18℃
영 광	흐리고 비	9/18℃
진 도	흐리고 비	11/19℃
전 주	흐리고 비	10/20℃
남 원	흐리고 비	9/19℃
흑산도	흐리고 비	11/16℃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5m
먼바다	남동~남	1.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3.0m
먼바다	동~남동	1.5~3.0m

	밀물	썰물
목포	01:25 13:34	06:45 18:55
여수	08:23 20:50	02:13 14:2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날 씨						
최저/최고	13/16	7/18	7/20	7/22	8/24	9/25

정광학원, 불이익 감수 두 교장 감싸기

시교육청 해임 요구 무시 정직 한달 '솜방망이' 징계

교사 채용비리로 비난을 받아온 정광학원이 두 교장에 대한 시 교육청의 해임 요구를 무시하고,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이' 징계만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각종 행·재정적 제재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시 교육청의 감사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징계를 내린만큼 향후 학교 운영에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23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학원 중·고교 형모, 정모 교장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법인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점은 확인됐으나, 이는 유능한 기간제 교사를 발탁하려는 선의의 욕심 때문이었다"면서 "시 교육청의 입장과 관계법령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광학원의 이번 징계 결정은 시 교육청의 해임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시 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 교육청은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급감축, 재정 보조금 지원 축소나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정광학원측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광학원의 이번 조치는 교육자의 양심과 도덕적 가치를 버린 행위"라면서 "시 교육청은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재정 결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모든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 무명열사 '가족 품' 돌아갈까

행불자 9가족 등록 … DNA 대조 결과 '주목'

29년 동안 무명열사로 남아있는 80년 5월 희생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18 행불자 소재찾기 사업'으로 5·18 구 묘역에서 발굴한 11구의 유골 가운데 현재까지 5구가 연고자를 찾지 못해 국립 5·18 민주묘지 무명열사 묘역에 묻혀 있다. 나머지 6구는 유전자 대조작업을 통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시는 친족을 찾지못한 5구와 5·18 행불자 가족(282명)의 DNA를 대조한 결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실제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했었다.

그러나 최근 마감한 5·18 6차 보상 신청자 가운데 김모(33·경기도 광주시)씨 등 9가족이 새롭게 자신의 친족이 80년 광주항쟁 당시 실종됐다고 신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이들과 무명 열사와의 연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전남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 의뢰해 가족 14명의 혈액을 채취, 유전자 대조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이 무명열사 5명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대조를 위해 혈액채취 작업에 착수했다"며 "오는 5월 말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5·18 암매장 장소로 제보를 받은 북구 효령동 산145-2번지에 대해 발굴작업을 벌여 유골을 감정한 결과 5·18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법정 견학·모교 특강·범죄없는 마을 선정

광주고법·광주지검 '법의 날' 행사 다채

법원과 검찰이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법정견학 및 모교방문 특강, '범죄없는 마을' 선정 및 법질서 강의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23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법의 날을 전후로 ▲다문화가정 초청 법정 견학 ▲법관들의 모교방문 특강 ▲초등생 모의재판 ▲복지시설 방문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법원은 우선 다문화시대를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광주지역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법정 견학과 재판 방청 등의 행사를 갖는다.

법원은 또 법의 소중함과 법원의 참된 모습을 알리기 위해 모교 방문 특강을 실시한다.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은 다음달 20일과 6월 20일 각각 전남대와 모교인 북성중에서 각각 강단에 서며, 손진홍 공보판사는 같은달 18일 모교인 송원고에서 강의를 한다.

아울러 법원은 초등생들의 준법의식을 키워주기 위해 광주 삼정초교 6학년생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왕따 사건 손해배상' 등을 주제로 모의재판을 연다. 또 고법 참사랑봉사회는 다음달 21일 사회복지시설인 광주시 동구 성빈여사를 찾아 봉사활동을 벌인다.

검찰도 법의 날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지검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 특강과 함께 '범죄없는 마을' 선정 등의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영렬 광주지검장이 지난 7일과 23일 각각 조선대와 담양군 노인대학에서 '법치주의와 국가발전'이란 주제로 강단에 서 눈길을 끌었다. 김재호 검사는 지난 20일 화순중학교 학생 720명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광주지검은 또 23일 광주시, 전남도와 공동으로 '범죄없는 마을' 36곳을 선정하고 24일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나선다.

올해는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가정마을이 5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에 선정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올 여름 무덥다

기온 변화도 클 듯

올 여름 날씨는 평년보다 좀 더 무덥고 기온변화도 클 것으로 예측됐다.

23일 기상청의 6~7월 기온 예측자료에 따르면 6월 기온은 평년(16~23도)과 비슷하겠고, 7월은 평년(19~26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24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5일 오전부터 차츰 그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10~60mm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